

# 環境保全法

大氣汚染·水質汚染·土壤汚染·騒音·振動 또는 惡臭 등으로 인한 保健衛生上的 危害를 防止하고 環境을 適正하게 保全함으로써 國民保健향상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하는 環境保全法이 國會에서 그 案이 通過된지 恰 6個月後인 7月 1日 부터 施行하게 되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도 公害防止法 등 갖가지 環境關係法規가 制定되어 施行되어 왔었다. 그러나 法自體가 未備·不安全하고 關係法 사이에 統一的體系성이 缺如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生活環境, 國土利用, 自然保護, 環境汚染 등 180個에 달하는 分野別 環境關係法規(規制 108개 및 助長 72개)가 部處別(建設, 農·水產, 保社, 內務, 商工, 交通, 科技處 其他)로 散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實効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이다.

經濟成長에 따른 高度의 生産活動으로 인한 각종 汚染物質의 排出과 人口의 偏重的密集 그리고 消費生活의 伸張 등으로 인하여 排出되는 汚染物質 및 廢棄物 등이 環境汚染을 漸次로 深化시키고 있어 從來의 公害防止法에 의한 規制만으로는 環境保全을 기할 수 없는 狀況에 이르렀다고 判斷되어 마련된 이 法은 適正한 環境을 保全하여 國民의 健康과 財産 그리고 快適한 自然環境을 保護하는데 필요한 環境基準의 設定, 特別對策地域의 指定, 排出許容基準의 合理的인 設定 등 諸般 對策이 緊要하게 되었기 때문에 提案되고 立法化된 것이다. 이 법은 또 그간의 消極的이고도 微溫的인 環境政策으로 인한 對策機構의 未備, 環境汚染防止 科學技術의 未開發 財政의 基盤 및 行政能力의 脆弱性 등을 活性化시킬 수 있는 法的根據를 마련해 준 것이다.

이처럼, 政府가 지금까지의 消極的인 態度를 急轉換시켜 보다 積極的인 環境政策으로의 강한 뜻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은 1977年 1月 朴大統 領께서 年頭記者會見 때라고 보여진다. 즉 「工業化過程에 있어서 수반되기 쉬운 環境汚染이나 公害問題에 대해서도 細心한 配慮를 하면서 先進 여러나라들이 工業化過程에서 過誤를 범했던 그러한 前轍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 미리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갈 생각」이라는 뜻이 천명되었던 것이다.

또 같은 해 8月에는 國務總理를 委員長으로 하는 環境保全委員會가 設置되어, 環境保全에 관한 基本計劃과 綜合政策등을 審議하게 되었으며, 동 12月에 열렸던 제98회 國會에서는 마침내 環境保全法과 海洋汚染防止法이 立法化됨으로써 우리나라 環境保全政策이 具體化된 것이다.

이러한 環境法的인 次元의 이 法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經濟開發 一邊倒에서 脫殼하여 快適한 環境속에서 人間다운 生活을 營爲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環境觀의 定立이 되어감을 뜻하는 것이며, 包括的인 環境政策의 樹立을 可能케 한 것으로서 從來의 公害防止法과 比較해 볼 때 次元 높은 大轉換을 試圖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 할 것이다.

그러면 이와같이 括目할만한 特質을 갖게 된 이 環境保全法의 施行과 더불어 우리 科學技術人이 하여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며 또 그 일들을 어떻게 計劃하고 遂行함으로써 앞으로의 最適한 環境保全方向을 슬기롭고 定立하는데 寄與할 수 있겠는가를 알아 볼 必要가 있을 것 같다.

우선 맨먼저 우리나라 環境汚染에 對處하여야 할 環境保全分野 科學技術現況을 살펴보기로 하자

# 施行에 즈음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환경관리연구실장 노 재 식

우리는 최근 십여년간에 이룩한 획기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謳歌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와같은 高度成長을 하기 위하여서는 헤아리기 힘들 만큼 많은 生産施設을 建設해서 工業開發을 해야 했었고 또 그에 比例한 資源의 使用增加를 强要함으로써 汚染物質의 排出量을 急増시켜 왔다는 事實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汚染物質의 排出量增加에 따른 環境영향을 감시·파악하는 作業에서만도 側定方法의 樞準化未備는 물론 斷片的이며 一貫성이 없었던 汚染度조사 활동자체가 環境保全對策을 效果의으로 樹立하는데 困難을 惹起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조사항목자체도 特定地域과 特定汚染因子(SO<sub>2</sub>, 粉塵, BOD 등)에 限定되어 왔기 때문에 全國의인 環境의 質에 관한 指數를 마련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함이 오히려 妥當하리라 본다.

또 環境側面을 考慮하지 않은 國土利用計劃, 都市計劃 등으로 인한 自然環境 및 景觀의 質의 惡化가 일고 있는가 하면 觀光地, 休養地에서의 無秩序한 開發行爲는 天然資源의 破壞까지 誘發시킴으로써 마침내는 全國의인 自然保護運動까지 展開하게끔 作用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船舶 및 海洋施設과 臨海産業地帶에서 排出되는 工業廢水와 生活廢水는 沿岸海水를 汚染시키고 있으며, 農藥이나 有毒性化學物質의 使用量增加는 食品 및 農水産物의 殘留性物質檢出量까지 늦게하고 있다. 또 主要河川, 湖沼의 水質汚染이 甚化되고 있는가 하면 이로 인한 各種用水의 淨水單價도 양등一路에 있으며 農土 및 沿海水에 미치는 피해 또한 적지 않은 實情이다.

따라서 環境保全法이 시행되는 이 마당에 우리 科學技術人이 하여야 할 일은 生産·消費·還元이라는 3개의 「서브시스템」을 갖고 있는 우리 人間環境을 合理的으로 保全하기 위해서 첫째는 環境汚染메카니즘의 究明과 汚染因子의 人體 및 生態系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綜合的研究, 둘째는 大氣汚染, 水質汚染 등 각종 오염對象別防止(低減)技術의 開發 및 새로운 汚染因子의 出現에 對處한 要素別 技術의 研究開發 그리고 셋째는 環境汚染物의 術理 및 無公害性 生産技術의 開發을 위한 시스템의 確立등에 그 基本方向이 두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점 政府가 第5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樹立함에 있어서 「國土를 効率的으로 開發·保全하여 快適한 環境을 造成한다는 것을 3大基本目標의 하나로 삼고 있는 것도 持續的인 經濟의 高度成長에 對處한 重點目標로서 認識한 것으로 解釋된다.

그러나 모든 先進工業國에서 그러했듯이 지금까지의 技術革新은 주로 生産性的의 極大化라는 側面에서 이루어졌었던 까닭에 여러가지 어려운 問題가 많이 나타나리라고 본다.

環境保全을 効率的으로 이룩하기 위한 科學技術人의 合理的인 슬기의 集積과 獻身的인 寄與가 오늘날처럼 강력히 요구되는 날도 어지간해서는 드물것이라는 使命感이 새삼 느껴짐을 皮력하면서 모든 科學技術人의 積極的參與를 期待해 마지않는 것이다. 이점 政府도 環境保全分野의 研究 및 技術開發投資를 果敢하게 밀어붙이므로써 所期의 目的達成을 위한 最大의 支援을 하기 바라는 것이다.